

Track 11

# 재생 하다

도시의 옛것을 살려서  
미래를 일구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재생하다] 제 11 호

## 기획콘텐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4인을 만나다

한눈에 보는  
2018 제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 도시재생소식

제주시 주민참여형 원도심 가로섬터 조성 주민발언회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 특강

2018 도시재생 한마당  
주민참여 지역맞춤형 콘텐츠 발굴사례 우수상 수상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조성사업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미래를 키우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송년 연하장 인사와 환경 재생 트리 함께 만들기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2018년 현장지원센터(신산머루/월평마을)  
도시재생 사업 결산

# 도시의 옛것을 살려서 미래를 일구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성현 센터장 인터뷰

2018년 11월 26일,  
공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꿈꾸며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한 부성현 센터장을 만나다.



**Q. 안녕하세요. 그간 해오셨던 일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취임한 부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탐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였고요. 1978년도에 당시의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남제주군청 건설과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40여 년을 근무하다 올해 6월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하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재직 중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1998년부터 10년 동안 제주시청의 건설과 도로시설 담당, 도시과 주거환경개선 담당, 도시개발 담당, 도시계획 정비 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Q. 도시·개발, 환경·시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네요.**

그간의 업무 덕분에 제주의 구도심권을 자주 접했었죠. 제가 주거환경 개선을 담당하던 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달동네를 전부 개선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도심같이 낙후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죠. 개발이 필요한 곳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개선이 필요한 몇몇 지역의 시설을 정비하고, 상하수도, 우/오수관을 분리하는 일들을 했어요.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으니 제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Q.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주안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시재생은 주민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험이 그 지역의 자생 역량을 키우는 핵심이죠. 확실히 행정주도로 일을 추진하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와 적극성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반면에 주민 주도의 사업은 애착을 두고, 더 열심히 임하시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에 도시재생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서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행정 간의 소통이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성현 센터장

원활히 이루어져서 도시가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앞으로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원도심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읍성 주변에 있는 옛길을 탐방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에는 제주성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는데요, 옛길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현존하는 문화 자원과 역사 풍경을 통해 스토리텔링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도심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통해 공용시설을 만듭니다. 원래 도시를 계획할 때 일정한 면적을 어린이 놀이터 시설, 공원, 공용 주차장에 할애하도록 하는데, 원도심에는 그런 공간이 없이 집만 다닥다닥 밀집되어 있어요. 원도심에 있는 자투리땅을 찾아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놀이터와 주차장 등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북초등학교 부근 통학로에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원도심 노후 전통 주택을 정비하고, 집의 울타리를 돌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원도심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Q. 신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도시 계획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 책입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를 활기있게 만드는 요소로서 “도시에 많은 사람이 오밀조밀 밀집해 있고,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것, 그리고 다양한 업종이 어우러져 다양한 경제 생태계를 이루는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녀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그런 요소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Q. 그간 해오셨던 개발 사업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네요.**

네. “사람과 삶, 다양성, 네트워크”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제인 제이콥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새로운 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도시를 개발하며, 기존의 물리적인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하지만 단순 재정비 및 개발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주의 돌담길, 발담 처럼 “조상의 추억과 숨결이 담겨있는 옛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제주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물론 익숙한 풍경들이겠지만, 관광객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더없이 새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옛 도시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업의 비전과, 센터장님이 그리시는 도시의 미래는?**

“옛것을 살려서 미래를 일구다.”라는 비전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통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에는 과거 선조의 삶과 현재의 삶이 겹쳐져, 제주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빌딩 숲을 이루는 화색의 도시가 아닌, 푸름이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 문화와 예술과 관광이 균형 있게 어우러지는 곳으로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글·사진 신지우



# 재생의 발걸음을 부르는 다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를 꿈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재근 사무국장 인터뷰

## Q.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는 이름 그대로, 도에서 운영하는, 제주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행정과 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협력을 만드는 다리역할을 해요. 그들의 입장이 서로 다를 때 조율하거나 합의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사업이 행정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주민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견 수렴, 교육, 사업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Q. 올해 광역센터의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광역센터에서는 뉴딜사업의 사업지를 발굴하거나,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초기에 함께 정합니다. 그다음에는 각 현장지원센터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광역센터 자체적으로는 주민 대상의 도시재생 대학, 도시재생아카데미, 코디네이터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이슈에 따라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과는 별도로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내고, 기초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의 생애와 관련된 것, 역사, 문화, 건축에 대한 자원 등입니다. 그 자원들은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Q. 올해 특히 의미있었다고 생각했던 사업은 무엇인가요?

요새 전국적으로 아카이빙(기록) 작업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카이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2월 7일에는 김영수 도서관이 마을 도서관으로서 개관했습니다. 그 일이 아마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창조경제지원센터와 구 기상청 건물을 창업지원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에서 탐라 문화광장에 대한

활성화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센터에서도 활성화의 필요를 어느 정도 공감해서 탐라 문화광장 중심에 있는 건물 두 동, 구 유성 식품이 있던 케왓과 고씨 주택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이 활발하게 찾아오도록 계획했고, 생활 환경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했던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 Q. 2018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 궁금합니다.

아직은 주민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광역센터도 그렇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에서 민간 협력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기존의 관행을 따르려고 하고, 주민은 불신의 벽이 높거나, 어떤 식으로 적극 참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역센터는 그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가교역할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서로의 역할이 명확해지면,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사업의 성과를 보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 Q. 2018년 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영수 도서관이 마을 도서관화 된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 학교, 주민, 센터, 제주도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습니다. 1년 가까이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주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다 보니 주민이 재생사업에 대한 인지가 높아졌고, 꽤 호의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민의 의지가 점점 강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뒤 주시기도 했고요.



이재근 사무국장

## Q. 2019년도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은?

2020년까지가 사업기간이기에 내년에는 사업이 가장 활성화되는 해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진행한 김영수 도서관 작업, 고씨 주택의 사랑방 작업, 상생 마당 작업, 주민의 쉼터를 만들어 가는 등의 작업들이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쯤에 결과물로서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광역센터의 독특한 점은 도시 디자인 팀이 있다는 것인데요. 공공디자인을 재생사업에 녹이는 작업을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디자인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내년에는 제주도 전체와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를 잡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 Q. 앞으로 그리시는 도시의 미래는?

도시는 늘 분절되거나, 삭막하다는 것을 상정해왔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농촌을 떠올리고, 도시는 그것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되었죠. 하지만 앞으로의 도시는 따뜻하고 작은 소규모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사는 분들이 도시라는 큰 틀보다는 공동체의 틀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눈 마주치면 서로 손 흔들고 인사하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집적해서 사는 구조는 점점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흩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 안에서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만드는 작업들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글·사진 김지현



# 재개발 위기에 놓였던 일도2동, 주민의 곱들락한 신산머루가 되다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송창윤 사무국장 인터뷰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Q.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신산머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신산머루 지원센터)는 작년 11월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사업으로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4월 생겨났습니다. 신산머루(일도2동) 지역은 최근 몇 년 간 인구의 20%가 줄어들었을 정도로, 50대 이상의 중장년 비율이 높고, 노후화된 집들이 많은 곳입니다. 센터에서는 노후화 된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거지원, 주민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올해 신산머루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들은 무엇이었나요?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주민 설문조사 및 인터뷰, 워크숍 및 간담회,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마을의 문제와 주민의 어려움을 파악해 사업의 방향을 구체화했죠. 주민이 마을의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론적 기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에는 총 5회차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8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만들어,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 코어 요가 프로그램, 사진, 협동조합 만들기 등을 해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서울과 대구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사업에서 주민 주체의 법인이 필요해서 올해 12월에는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기도 합니다.

## Q. 2018년 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산머루 지역은 ‘재개발’의 이슈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마을 주민 중에도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뉴딜사업은 그동안 재개발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 재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지역재생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자 했죠. 시간이 지나니 재개발을 찬성하셨던 분들이 지역 재생을



송창윤 사무국장

준비하는 ‘주민협의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3명 내외였던 협의체가 점점 늘어나 지금은 30명까지 되었죠. 소규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 친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마을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고, 직접 ‘곱들락한 신산머루의 날’을 만들어 마을을 청소하기도 하고요. 제안사업을 지원해서 1억 정도의 공동체 사업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12월 17일에는 그분들이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창립총회를 합니다. 주민이 단 몇 분이더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올해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요. 그분들은 앞으로 마을을 바꾸어 나갈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Q. 2018년도 사업 추진 시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도시재생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의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어렵죠.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부모가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웃음) 공부는 결국 본인 스스로 해야 하니까요. 지원센터는 행정의 위탁을 받은 중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개체로서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죠. 행정과 주민을 만족하게 하고, 조율해나가는 것이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 Q. 2019년도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은?

내년에는 건물 부지 매입과 건물 리모델링, 커뮤니티 공간들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연초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공간 운영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으로 주민이 직접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이 마을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역에는 일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분교 수준으로 낙후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학교를 개선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사로 찾아오는 분들이 제주에 단기로 정착함으로써 소득이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인문학이 밑바탕에 깔리고,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소득이 창출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꿈이라면 어르신들의 삶이나 이야기들이 그림책으로 만들어져서 문패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존심은 살려 드리고, 중장년층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젊은 친구들은 행사를 기획하는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들을 실험하고자 합니다.

## Q. 앞으로 그리시는 도시의 미래는?

자연환경이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도시의 건물이 멋지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올림픽을 할 때는 지구촌 마을이라는 말을 하죠.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두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마을 주민이라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숨을 쉬며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의 인프라가 좀 덜 갖춰져 있더라도 서로 보듬고 같이 가는 사회와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마을이라면요.

글·사진 김지현



곱들락한 신산머루의 날 행사 홍보



# 주민과 혼디 손심영! 탄탄한 기반 위에 지꺼진 월평마을을 꿈꾸다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송종철 사무국장 인터뷰



**Q. '혼디 손심영(함께 손잡고)! 지꺼진(기분 좋은) 월평마을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가진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이하 월평마을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존 사업들은 컨설팅업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주민이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해 의사전달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설립 목적이기도 하고요.

**Q. 올해 월평마을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또는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올해는 우선 주민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주민과 만나면서 느껴진 감정은 '불신감'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거들떠보시지 않았고, 경계하시는 눈빛이 확연하게 보였어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불신의 이유는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결과물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에 있었습니다. 주민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면서 참여했는데, 막상 사업이 끝나고 컨설팅 업체들이 떠나간 후에는, 지속가능하지 못했던 경험을 지니고 계셨어요. 일종의 컨설팅업체의 '놀이터'처럼 마을이 쓰인다고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의견을 잘 반영해 지속가능한 재생사업을 만들 것이다."라고 한 분, 한 분 만나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게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Q.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주민의 의견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공동체 활성화와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포함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거점이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마을 공동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중에서 "월평 해안 포구가 아름답다. 이것을 살

려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월평마을 지원센터가 주거지 지원형 사업이다 보니 직접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비록 저희 사업에는 담아낼 수 없지만,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번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어촌 뉴딜 3004'에 지원하여 주민협의체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Q. 2018년도 사업 추진 시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월평마을 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작년 12월 최종선정 되었고, 올해 4월 2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활성화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성과주의식 정책이 남아있는 거죠. 촉박한 시간으로 주민의 의견을 담고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혼디 손심영(함께 손잡고)! 지꺼진(기분 좋은) 월평마을 만들기'인만큼, 주민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수 선진지 답사 과정이 있었는데, 선진지를 안내해 준 분들께서 선진지 답사 참여자들을 단순한 소비자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종의 패키지 관광과 마을 투어를 해주었습니다. 선진지 답사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도시재생을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나,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어떻게 개선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2018년 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월평마을 전체는 250여 가구, 인구는 560여 명 됩니다. 사업대상 지구에는 180여 개 가구가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용역사에 주문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을 모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죠. 정말 모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이거나, 시간 때가 맞지 않아서 다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직접 주민을 한 분, 한 분 만나고자 했던 노력 부분이 주요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류상은 전수조사라고 적어 놓지만, 그렇게 실행하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Q. 2019년도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이 가장 중점적인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대학뿐만 아니라 월평마을 학교, 도시재생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하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성과분석, 그 과정을 기록하는 부분들을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해볼 예정이에요. 주민 모니터링단, 주민 기록사업단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마을실험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을에 나타나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 점을 가장 잘 아시는 주민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작은 문제들은 직접 해결해 나가는 마을 실험실에 시작 단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Q. 앞으로 그리시는 도시의 미래는?**

도시의 구성요소는 사람, 건물, 인프라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건물 혹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 지역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도시의 중심은 주민이 되고, 그들이 정주 여건과 생활기반을 만들어나가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미래의 도시가 추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가 도시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사진 오세광

# 한눈에 보는 2018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2018.12.07. 기준

##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수 **11**개/전체주민협의체 인원 수 **168**명/전체회의개최 수 **118**회공모사업 추진 **3**개/협의체제안사업 추진 **2**개/협의체

## 주민소통

공감마이크 오븐 1회 〈우리동네에 주차장이 생겨요〉	04.11.	<b>20</b> 명
공감마이크 오븐 2회 〈우리동네에 주차장이 생겨요 행정 피드백〉	05.17.	<b>10</b> 명
공감마이크 오븐 3회 〈삼도2동 주민참여형 가로쉼터 조성〉	07.10.	<b>15</b> 명
공감마이크 오븐 4회 〈삼도2동 주민참여형 가로쉼터 조성 행정 피드백〉	08.02.	<b>7</b> 명
공감마이크 오븐 5회 〈대정읍, 이슈찾기〉	11.07.	<b>37</b> 명
공감마이크 오븐 6회 〈주만참여형 원도심 가로쉼터 조성〉	11.22.	<b>25</b> 명

## 교육 및 행사 운영

공행공 사전공감프로그램 〈전통시장 도슨트와 함께하는 오메기 컬리너리투어, 제주가 두근두근〉	02.26.	<b>40</b> 명
마을교육공동체 전문가 워크숍	03.04. ~04.25.	<b>15</b> 명
도시재생 아카데미(상반기)	03.06. ~29.	<b>88</b> 명
도시재생 실무단 현장포럼	03.22. ~23.	<b>39</b> 명
공행공 사전공감프로그램 〈제주의 봄, 아름다운 천연염색으로 감싸는 봄 도시락〉	03.30.	<b>33</b> 명
제주형 공공레시피 개발 워크숍	04.12. ~05.20.	<b>30</b> 명
도시재생대학(공통/문제해결과정)	04.26. ~07.13.	<b>64</b> 명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	04.27. ~07.16.	<b>6</b> 팀
제주푸드포트 페스티벌	05.19. ~05.20.	<b>3,000</b> 명
도시재생스타트업공모 사업설명회	05.28. ~29.	<b>25</b> 팀
국토부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05.31. ~08.31.	<b>11</b> 명
공행공 기획전시〈원심력展〉	06.29. ~07.12.	<b>약500</b> 명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 교육	07.02. ~04.	<b>48</b> 명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	07.05. ~08.	<b>80</b> 명
근대건축지도 디자인 워크숍	07.30. ~11.16	<b>20</b> 명
도시재생 디자인 교육(24강)	08.24. ~11.09.	<b>400</b> 명
도시재생 아카데미(하반기)	08.28. ~09.20.	<b>92</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원도심을 빛나게 하는 작은공간 이꼬이&스테이〉(2회)	10.04.	<b>4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내손으로 만드는 야생화 에코 드림백〉(2회)	10.18.	<b>40</b> 명
전통시장 탐방 쿠킹클래스(10회)	10.24. ~11.14.	<b>20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가장 친환경적이고 따뜻한 한접시, 심목라이프의 나만의 나무접시〉(2회)	11.01.	<b>4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내 손으로 빚어주는 백일떡과 백일상 홈스타일링〉(2회)	11.08.	<b>4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제주의 화산암반수로 만든 우리집 천연정수기〉(2회)	11.10.	<b>3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녹차로 더욱 깨끗한 제주의 물 쿠킹클래스〉(2회)	11.15.	<b>3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고려사람들의 음식, 고려의 떡과 과자〉(2회)	11.17.	<b>3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오래 만들어 두는 맛있는 반찬〉(2회)	11.21.	<b>3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깨끗한 삼다수로 만든 제주바다 절임반찬〉(2회)	11.22.	<b>3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우리가 몰랐던 제주 잔치음식〉(2회)	11.23.	<b>30</b> 명
주민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편해문 특강, 놀이터는 도시재생의 마중물이다〉	11.23.	<b>5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배우고 싶은 맛있는 일본 가정식〉(2회)	11.28.	<b>30</b> 명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환경과 제주를 생각하는 로푸드 디톡스 워터〉(2회)	11.29.	<b>30</b> 명
제북페스티벌(김영수도서관 재개관식)	12.07.	<b>500</b> 명

## 홍보

### SNS 운영

페이스북 좋아요  
**1,003**개페이스북 팔로우  
**1,048**명콘텐츠 **86**건 업로드인스타그램 팔로우  
**280**명

## 발간물

### 소식지 발간

총 **4**호 (8호 ~ 11호)제주도시재생아카이브 기본  
계획수립연구 최종보고서

음식과 인문학 그리고 제주

## 협력

### 업무협약 2건

제주청년일성장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리노베링-제주창조경제혁신  
센터-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시재생의 첫 걸음이 돼야

제주시 주민참여형 원도심 가로쉼터 조성 주민발언회

### ※ 주민참여형 가로쉼터 조성 사업이란?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공원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됨

### ※ 추진경과

- 부지매입 완료 (2018. 01)
- 사전간담회 3회 실시 (2018. 4. 12 / 5. 12 / 6. 05)
- 주민발언회 진행 및 주민의견 수렴 (2018. 7. 10)
- 주민발언회 행정질의사항 피드백 회의 진행 (2018. 8. 02)
- 행정 관계부서 검토사항 확인 및 프로세스 확인 (8월~11월)
-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진행사항 공유 (2018. 11. 22)
- 사업별 주민협의체 설립 진행 중 (2018년 12월 중)

### “주민의 이야기가 계획이 됩니다.”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원도심의 한 카페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등 25명의 참여 속에 2018년 여섯 번째 공감마이크 오븐이 개최되었다.

사전간담회 3회, 주민발언회 2회 등 지난 8개월 여 간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 피드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졌다.

어르신 쉼터, 역사박물관,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녹지공원, 주민복합공간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방향은 너무나 다양했다.

행정검토를 통해, 해당부지에서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또 다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원도심 내 어린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원도심 내에 필요하지만, 현 부지의 개발가능 여부나 위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공감마이크 오븐 6회는 가로쉼터 조성에 대한 방향을 ‘어린이 놀이터’로 정하고 그에 따른 관계부서 확인 사

항 등 그 동안의 경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자리로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과 마주 앉게 되었다.



추진 경과 공유

### “아이들이 뛰어노는 도심 속 숨골”

이번 사업을 위해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총괄디자이너이자 국내 놀이터 디자이너 전문가인 편해문씨를 초청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편해문씨는 사업의 추진경과와 주민분들의 의견조율과정, 현장 상황들을 보고나서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마음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덧붙여 ‘놀이터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도심 속 숨골.’이라고 표현하며 도시재생사업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어린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판단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전했다.

###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것”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끝나고, 주민들은 발언회를 이어갔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주민협의체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그 구성에 대해서 인근주민을 포함하여, 어린이 관련 전문가, 인근학교 등으로 협의체를 확장시켜 출범하는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주민A씨는 현 부지가 오랜기간 방치되어 동네의 흉물이 되고 있다며, ‘주민참여형 가로쉼터 조성 사업을 통

해 직접의견을 내고, 사업의 진행과 조성 이후 관리에 대해서도 협의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주민협의체 설립 전까지 임시대표 2명을 선출하여 올해 안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민발언회 진행



## 놀이터는 도시재생의 마중물이다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 특강



### 편해문은 누구?

- 1969년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대한민국의 놀이터 디자이너이자 어린이책 작가, 놀이운동가
-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총괄기획가
- 서울시교육청 꿈을 담은 놀이터 자문관
- 세종시 행복도시 놀이터시범사업 총괄계획가
- 시흥시 플레이스타트 추진단장
- 저서 :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등 다수

###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2018년 11월 23일, 주민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씨를 초청하여 지역 주민 및 관심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놀이터는 도시재생의 마중물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편해문씨는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을 보고 아이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제주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야기를 열어나갔다.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사례를 바탕으로 놀이터가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 그 속에서의 행정과 주민, 어린이들의 합의과정을 통해 제주 도시재생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찾게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이들의 성향과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이 바뀌어야 함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참가자들은 깊은 공감을 표현했다.

참가자 A씨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아이들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오늘 같은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참여가 활발해져서 아이들로 하여금 시작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아이들 관련 도시재생사업 계획 중”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감하며, 추후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관련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것을 공지했다.

## 역사를 품은 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젝트 결실

2018 도시재생 한마당 주민참여 지역맞춤형 콘텐츠 발굴사례 우수상 수상  
도시재생한마당 지자체 부스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어디서 옹데강? 우리는 ‘제주도민’이우다.  
(어디서들 오셨나요? 우리는 ‘제주도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창작자’ 또는 ‘디자이너’입니다.  
도시재생은 우리 동네를 위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지역이 곳곳에 있는데, 이번 도시재생 주민  
참여 프로젝트는 역사의 마을 대정을 상상하고  
창작해보려고 창작자와 디자이너들이 모였습니다.”

이 팀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역사·문화·건축을 과거·현재·미래의 콘텐츠로 디자인하는 ‘역사를 품은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공모과정을 통해 결성된 ‘도시재생 디자인&창작자 커뮤니티 워크숍’팀이 지난 11월26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2018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에서 주민참여 지역맞춤형 콘텐츠 발굴사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민참여경진대회 발표

참가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50여개 지자체 사업 중에서 1차 예선을 통과한 12곳이 경연을 벌였다.

막 시작되는 단계임에도 팀원들 간 활발한 참여와 소통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추진된 사업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정부·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홍보,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 및 전파, 도시재생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도시재생 미래를 잡(job)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이와함께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동안 펼친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내용과 성과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차렸고 제주 관련 액세서리 및 기념품 장터부스를 운영했다.

덧붙여, 홍보자료에 가장 공을 들이고, 제주감귤과 감귤초콜릿으로 제주만의 홍보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한마당 지자체 부스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여 2018도시재생 한마당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 이제 다시 성(城) 안이다!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조성사업, 제주 성안의 잊혀진 장소, 그리고 기억에 주목하다.



제주시 원도심 역사경관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도심 올레 : 이야기로 만든 옛길(이야기길)’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도심올레’ 조성 사업은 제주시 원도심의 문화자원 및 스토리를 활용한 도보 탐방로 조성을 목표로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문화원, (사)제주올레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센터에서는 성내, 성안으로 일컬어지던 원도심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인 제주성(濟州城)

의 가치에 주목하여 지난해, ‘제주시 원도심 해설사 양성과정 교육’, ‘제주성터 걷기 행사 개최’, ‘옛 제주성을 거닐다 소책자 제작’을 통해 제주시 원도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 성,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도심 역사문화강좌인 ‘2018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탐라시대부터 조선시대, 근·현대를 아우르는 총 여섯 강연을 통해 제주시 원도심의 유구한 역사를 이해하였다.

또한 12월 6일에는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조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기존 원도심 탐방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조성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공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자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심올레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도심올레 아카데미

이제는 다시 성안이다. 내년에는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제주성이라는 역사적 정체성 안에 이제 남은 것은 그곳을 채울 제주도민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다. 센터는 내년부터 원도심 탐방로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심올레 거점공간 조성,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본격적인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도심올레 아카데미 워크숍



도심올레 아카데미 자문회의

## 추진 경과

‘16.  
10.27.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제주올레, 제주문화원)

‘17.  
10.27.  
~12.08.

제주시 원도심 해설사 양성교육 운영

‘17.  
12.18.

제주성터 걷기 및 해설사 시연 행사 개최  
(참여인원 30명)

‘17.12.

‘옛 제주성을 거닐다’  
홍보용 소책자 제작 (500부)

‘18.  
10.~12.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 (3회)

‘18.  
11.21.  
~12.07.

2018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아카데미 운영

‘18.12.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주시  
원도심  
도심올레  
조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재탄생한 김영수도서관, 도시재생의 미래를 밝히다

제주시 원도심,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미래를 키우는 교육환경개선사업



### “우리 마을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제주시 원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가려면 복잡한 도로를 가로 지르며 30~40분을 걸어가야 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가볍게 나설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마을도서관이 생기기를 바라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원도심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제주북초등학교는 111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 초등교육의 발상지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때 학생수가 3,000여명에 달했던 적도 있었으나 올해는 12학급에 전체 학생 수가 203명이다. 제주북초 뿐만 아니라 제주시 원도심의 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원도심에 아이들이 줄어들다보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도 부족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크다. 주민들은 마을도서관이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학교도서관이 마을도서관으로

제주북초등학교의 김영수도서관! 1968년 제주북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인 김영수 동문이 기증한 이 도서관은 지난 50년 동안 제주북초 학생들을 위한 학교 도서관으로 충실하게 역할을 해왔고, 제주시 원도심 마을도서관으로 새로 태어날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주민들은 학교 도서관을 활용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이 생기는 데 반가움을 표했으나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본 사업을 위해 제주북초등학교 박희순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 교육청, 행정,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지원협의체를 꾸려 나가며 주민들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공간

지역의 교육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제주시 원도심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방향과 마을도서관의 교육 콘텐츠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제주북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운영회의 등을 거쳐 향후 주체로 활동할 제주북초 학부모팀을 꾸렸고 국토부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공모사업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은 이 도서관의 주인인 아이들의 의견수렴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설계를 기본으로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수요조사,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철저하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계되었다. 도서관 창문 너머 목관아를 울퉁이 보이게 하고 햇살 가득 방안에 스미도록 한옥 컨셉이 도출되었고 상량식 기둥도 고재로 마련하여 제주북초등학교 학생들의 염원을 기록하는 등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첫 결실

2018년 12월 7일, 주민·학교·행정은 한마음 한뜻으로 김영수도서관의 준공을 축하했다. 새로 리모델링된 김영수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 사용하지 않던 창고와 관사를 활용해 지상 2층, 건축연면적 365.03㎡ 규모로 확장됐다.

도서관은 1층에 한옥방 5실(설문대할망방, 가문장아기방, 영등할망방, 자처비방, 대별왕방)과 계단형 복층 서가, 북카페 '참새방앗간'으로 2층에는 목관아의 전경이 펼쳐지는 정원형 서가로 '아름다움방' '온고지신방' 등 책을 읽고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구성됐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날 ‘도서관 탐험대’를 운영하여 제주북초등학교 전교생들에게 김영수도서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은 새로 바뀐 학교 도서관에서 매일 책을 읽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영수 도서관 상량식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공사 전후 전경

◀ 공사 전 ▼ 공사 후



### 차근차근 준비 중인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도서관 활동가 교육’

마을도서관 활동을 통해 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  
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된  
‘마을도서관 활동가 교육’도 지난 11월 27일부터 12  
월 13일 까지 진행했다. 제주시 원도심 뿐만 아니라 제  
주도 전역의 학부모 3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다  
양한 책 활동 소모임 운영, 사서 교육 등을 통해 활동가  
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5월, 새로이 문을 열게 될 김영수 도서관이 학  
생들에게는 언제나 꿈과 희망을, 지역민들에게는 즐겨  
찾는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추진 경과

2017.	04.~ 08.	김영수도서관 활용 마을도서관 조성방안 협의(도(센터)↔제주북초 (도 교육청, 제주시 교육지원청))	05.~ 08.	주민참여 프로젝트팀(학부모 5인 및 전문가) 워크숍 운영
	07.~ 09.	마을도서관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용 공간 조성계획 수립	06.05.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공사 현장설명회 개최
2018.	01.~ 04.	도서관 운영 및 활용을 위한 마을 교육공동체 조성 협의 (도-센터-제주북초-학부모)	08.09.	도서관 선진지 답사(학부모 대표 및 사업 관계자 총 12명)
	03.~ 0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운영(총 5회)	09.21.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상량식(전교생 및 사업관계자)
	04.09.	제주북초등학교 학부모총회 사업설명회 개최	11.25.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
	05.28.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착공	12.07.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준공식 및 제북페스티벌 개최

## 2018 감사합니다!

2018 송년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함께 2019년 도시재생의 불을 밝혀주세요!



2018 송년 한마당에서는 점등식 행사와 3가지의 이벤  
트가 진행되었습니다.

#### 장 소

탐라문화광장(중앙로3길 36/산지천갤러리)일원

#### 목 적

원도심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송구영신  
의 온기를 전하는 메시지를 시작함으로써, 이 지역의  
어둠에 대한 이미지와 감성을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긍  
정적인 측면의 시선으로 환기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JEJU URBAN REGENERATION CENTER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 1. 점등식 행사

일정 : 2018년 12월 20일(목)

시간 : 저녁7시~8시30분

장소 : 산지천 갤러리 앞 무대(트리 및 LED연하장)

행사 내용 및 정보 :

<http://www.facebook.com/jejuregen/>

#### 2. 참여이벤트

내용 : 삼다수 페트병으로 트리 만들기

일정 : 12월 16일(일)~18일(화)

시간 : 13시~18시 (참가신청은 16일까지)

#### 3. 응모이벤트

내용 : LED 연하장 메세지 송신

응모기간 : 12월25일(화)까지

상영기간 : 12월20일(목)~1월3일(목)

#### 4. 현장이벤트

내용 : 송년 연하장 포토월

일정 : 12월20일(목)~1월2일(수) 상시 설치

※ 자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제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채널로 소개됩니다.



## 가치있고 · 가치있고 · 같이 있는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



### | 운영기간

2018년 10월 04일(목) ~ 2018년 11월 29일(목) / 24강 / 프로그램별 오전, 오후 클래스로 진행

### | 교육내용

인문학 프로그램(8강), 삼다수 쿠킹클래스(8강), 행복 짓는 케왓 부엌(8강)

### | 인 원 각 강의별 오전15명 / 오후15명 선착순 모집

### | 교육장소 케왓(관덕로17길27)

지난 10월 4일 인문학 프로그램인 ‘원도심을 빛나게 하는 작은 공간 이꼬이&스테이’를 시작으로 11월 29일 삼다수 쿠킹클래스 ‘환경과 제주를 생각하는 로푸드 디톡스워터’를 끝으로 총 24강의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혼밥, 혼술의 시대에 새로운 상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의 물과 음식, 문화, 그 우수성과 가치를 찾고,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음식’과 ‘제주’를 주제로한 프로그램 마련을 고민하던 끝에 제주삼다수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어 준비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건강한 식생활, 따뜻한 집밥의 가치를 찾고, 로컬푸드와 로컬스토리의 가치를 잇고, 같이 식사를 즐기는 동안 새로운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음식’의 힘으로 케왓이 반짝이는 시간, 제주의 부엌은 아래의 3가지 큰 카테고리 진행되었다.

### A. 인문학 프로그램

- 일상생활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제주의 주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살펴봅니다.

-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주의 자연과 생태, 생활에서의 삶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 B. 삼다수 쿠킹클래스

- 제주의 물, 삼다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수업을 공유하고,

- 깨끗한 물과 더불어 제주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해 봅니다.

- 제주의 자연이 주는 감사함에 대해 서로 소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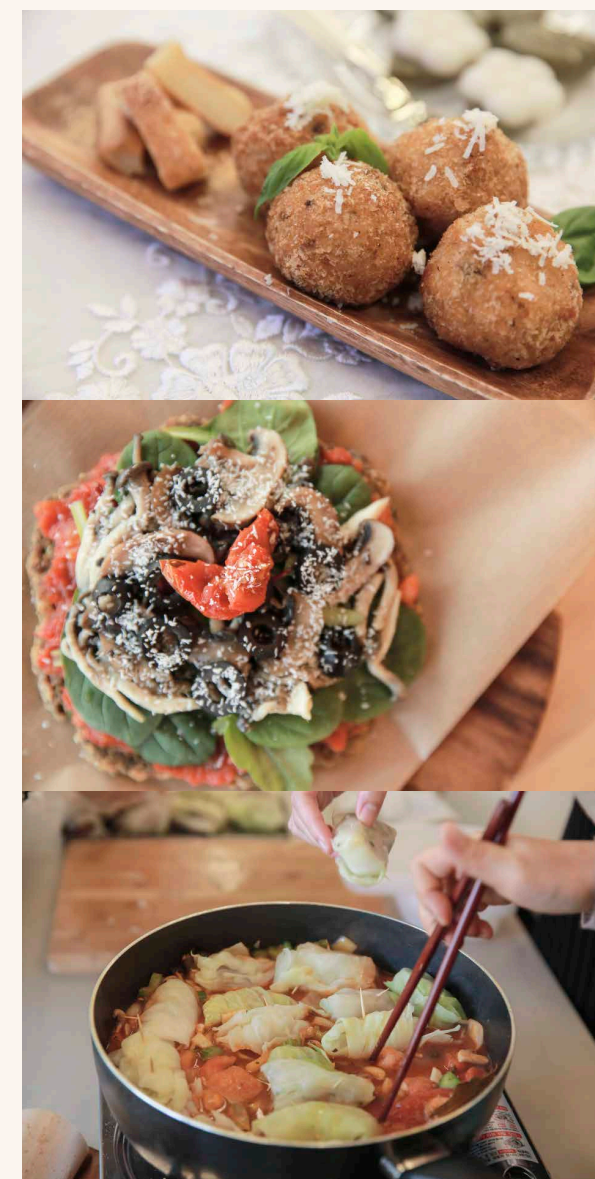
### C. 행복 짓는 케왓 부엌

- 다양한 장르의 쿠킹클래스 진행을 통해 음식커뮤니티 공간 케왓을 공유합니다.

-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 나눔이 어렵지 않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반찬나눔 쿠킹클래스를 통해 자발적 자원 봉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 잊혀져 가는 제주의 특별식에 대한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케왓’의 장소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에 대해 알리고, 더 나아가 케왓이 위치한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홍보와 관심과 더불어 ‘탐라문화광장’에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취합할 수 있는 기회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마치는데 아쉬워하면서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탐라문화광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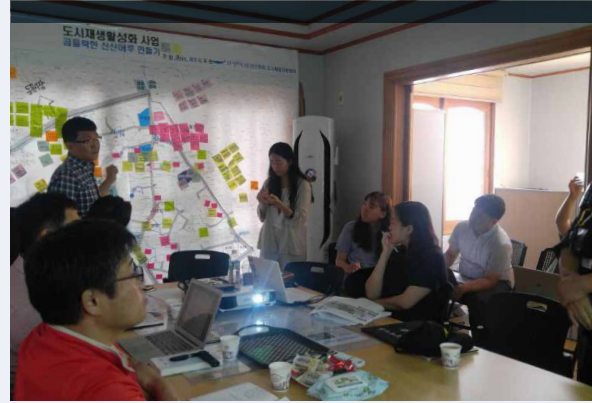


## 2018년 신산머루 도시재생 사업 결산



### | 주민의견수렴

- 주민 설문조사 인터뷰 상시
- 워크숍 및 간담회 3회
- 주민설명회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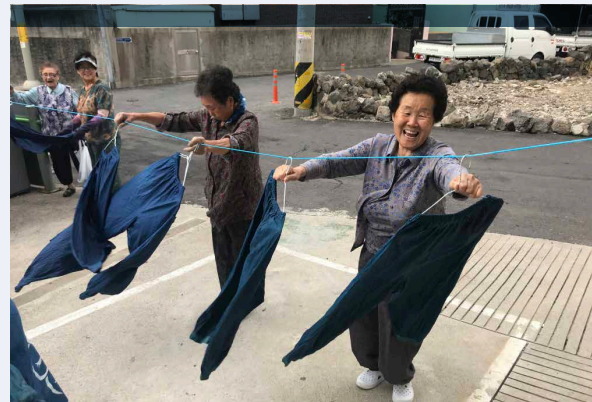
### | 신산머루 뉴딜사업 추진회의

- 정기 주관 회의 31회
- 협력기관 자문회의 7회
- 주민협의체 회의 18회



### | 도시재생대학 1회

- 1강: 도시재생 뉴딜개념 및 정책의 흐름
- 2강: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이론과 사례
- 3강: 도시재생과 우리동네의 변화
- 4강: 주민활성화워크숍



### |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총 19회

- 천연염색스카프만들기 2회
  - 천연염색기초반 4회
  - 코어요가프로그램 4회
  - 나도사진작가다 3회
  - 마을협동조합만들기 3회
  - 원데이강좌 3회
- (마법고추장만들기, 반려식물만들기, 천연비누만들기)



### | 도외 선진지답사 2회(서울, 대구)



### | 곰들락한 신산머루의 날 1회

(매월 1회씩 진행 예정)



신산머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신산머루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이해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였고, 주민인터뷰등 주민과의 소통을 진행하며 주민의견수렴도 하였다.

또한 주민활성화워크숍 및 설명회를 통하여 도시재생 사업홍보와 지역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으며,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안내하며 주민간의 참여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마련과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협동조합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주민조직의 주도적인 참여와 마을 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도외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를 통해 주민이 마을대청소라는 주제로 행사를 제안하여 ‘곰들락한 신산머루 주민의 날’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매월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신산머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역역량강화 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등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2018년 월평마을 도시재생 사업 결산

### 제 1기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대학

제 1기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재생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마을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낙후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조성했다.

- ▶ **일 시** 2018. 06. 21 ~ 07. 12, 19:00~21:00(매주 목요일)
- ▶ **장 소** 서귀포시 월평마을 다목적회관
- ▶ **참석인원** 참석 인원: 33명(수료 인원: 25명)
- ▶ **교육내용** 도시재생에 대한 기초지식과 주민 공동체 조직과 일자리 창출, 제주 자원으로 제주 미래가치 만들기



### 제 1기 월평마을학교

월평마을학교 프로그램은 연잎차 만들기과 메리골드 꽃차 만들기로 진행됐다. 본 프로그램은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 마련 및 사업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공동체 주도로 마을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일 시** 2018. 08. 16/ 08. 30, 19:30~21:30
- ▶ **장 소** 서귀포시 월평마을 다목적회관
- ▶ **참석인원** 15명
- ▶ **견학장소** 메리골드/ 연잎 꽃차만들기



### 도외 선진지 견학

월평마을 주민협의체 중 희망자(주민 총 27명)를 대상으로 서울시 성미산마을, 상도4동, 창신·송인동, 해방촌을 방문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마을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선진지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마을기업 운영진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마을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 **일 시** 2018. 09. 12. ~ 09. 14(2박 3일)
- ▶ **장 소** 서울시 성미산마을, 상도4동, 창신·송인동, 해방촌
- ▶ **참석인원** 23명



### 제 2기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대학

제 2기 도시재생대학은 마을경제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추진됐고 마을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방안 모색, 지역 특성에 맞는 사례 검토, 지역의 핵심 활동가 발굴 등을 목표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다양한 기관과 관계자와의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지역 리더 발굴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 **일 시** 2018. 10. 11 ~ 11. 15, 18:00~20:00(매주 목요일)
- ▶ **장 소** 서귀포시 월평마을 다목적회관
- ▶ **참석인원** 31명(수료 인원: 21명)
- ▶ **교육내용** 마을경제공동체 조직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활동 사례를 통해 월평마을 적용 방안 모색





Track II

# 재생 하다

발 행 일 2018년 12월 26일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5-6)

발 행 인 부성현

기획·디자인 어떤생각이든연구소

인 쇄 일신옵셋인쇄사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 페이지 [www.jejuregen.org](http://www.jejuregen.org)